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1월 후원미사는 20일, 2월 후원미사는 17일, 3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1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8,270,850	전월이월금	20,000
지 로	1,664,680	우리은행	8,721,070
국민은행	3,871,000	하나은행	866,000
조흥은행	85,000	신한은행	1,055,000
외환은행	537,500	제일은행	95,000
농 협	1,015,600	기업은행	320,000
우 체 국	4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5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3,603,750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6,128,750	잔액(이월금)	2,162,1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12 / 제42호

펴낸날 2019. 12. 16.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하느님 사랑=이웃 사랑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추워지는 날씨가 무척이나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지붕이 있는 따뜻한 집이 아닌, 길 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하는 노숙인 분들입니다.

매년 이 추운 혹한기에 교구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을지로와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분들을 돌보기 위한 '동절기 노숙인 야간 순회'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봉사자들이 이 따뜻한 이웃 사랑의 실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해 겨울에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봉사 팀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도우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을지로 지하도를 걸으며 여러 분의 노숙인 분들을 지나쳐 갔지만 그동안은 뼀새 때문에, 어렵고 두렵기도 해서 무엇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봉사자분들과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니 용기를 내어 그분들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지하도에서 따뜻한 차와 빵을 드리며 모자, 과자, 굴 등이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도 드렸습니다. 봉사를 함께했던 어떤 한 분은 이런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리의 노숙인 분들이 예수님이시대! 는 생각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2시간 동안의 봉사를 마칠 즈음 팀장님 곁을 걷던 저에게 예전에 교구의 주교님께서 함께하셨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교님께 어떤 노숙인 분께서 "신부님, 너무 추워요!"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우리 주교님께서서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입고 계셨던 두꺼운 외투를 그냥 벗어 주셨다고 합니다. 주교님의 따뜻한 미담을 듣고 흐뭇함을 느끼며 봉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명동으로 가려는데, 어떤 노숙인 형제님이 우리 봉사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갑은 없나요? 손이 시러워요!" 이 말씀을 들은 팀장님은 "제꺼 가져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와 노숙인 형제님 사이에는 물론 물리적 거리가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제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주춤하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사랑, 자비, 용서 등의 복음 실천들을 강론에서 강조하던 사제인 나는 과연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애덕을 실천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우리 이주민들을 위한 후원회원 분들의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사랑의 복이 후원회원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저희 이주사목위원회의 사제들, 수녀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 광 휘 베드로 신부

공동체 소식

위원회 소식*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11월 17일은 제3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인 연중 33주에 지내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6년 11월 '자비의 특별禧년 폐막 미사'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날을 제안하면서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의 각 위원회에서도 미사와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야외 부스 행사에 참여하여 이주사목위원회 소개와 퀴즈를 통하여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광희 위원장 신부님께서 신월동 성당에 파견되어 미사 집전과 강론을 하셨습니다. 미사 중 강론을 통해 선입견과 혐오가 아닌 이주민들을 똑바로 알고 바라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주민들을 우리가 가진 것을 받기만 하는 시혜자들이 아닌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주는 친구가 되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문에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고 도와주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주사목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미공동체 소식* - 전시회

지난 11월 9일(토)~10일(일) 성북구에 위치한 영라인 산부인과 3층 갤러리에서 남미공동체 이주민들과 이주배경 자녀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만든 봉제품과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의 그림 전시회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주민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뿌듯함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자녀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음에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었는데 재바보의 나눔 사업을 통해 재능을 잃지 않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국가별공동체 소식* - 독감 무료 예방접종

11월 3일(일) 라파엘클리닉 후원으로 국가별 공동체에서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총87명(베트남: 30명/남미: 24명/태국: 21명/몽골: 4명/중국: 4명/기타: 4명)의 이주민이 독감 백신 접종을 하여 추운 겨울에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라파엘클리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학생 봉사활동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신학생 2명이 이주사목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곳은 일 마다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 최선광 마티아 신학생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최선광 마티아 신학생입니다. 저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주노동자 상담실에서 봉사하며 영어 통역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잘 챙겨주셨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3개월의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있는 난민들과 이주민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외국인 환자분들과 함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상담실에서 다뤘던 수많은 사례들을 서류로 접하며 이주민과 난민들의 생활적인 문제, 임금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이주 노동자 상담실의 역할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아닌 생존을 위해 한국이란 나라로 찾아오는 이주민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에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셔야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묵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한국이란 타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김 산 세례자 요한 신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혜화동성당 김 산 세례자 요한 신학생입니다. 저는 금년 10월 1일부터 이주사목위원회안에 속해있는 마고네 공부방이라는 곳에서 국내 사목실습을 하였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같이 지냄으로써 행복할 수 있었던 저는 마고네 공부방이라는 곳을 신부님께 추천 받았고 3개월간의 시간을 마고네 공부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날 마고네 공부방을 갔을 때 시설장님의 설명을 듣고 아이들과 첫 만남을 가진 다음, 이곳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공부방'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곳임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의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한 공간 안에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단지 공부방이 아니라 아이들의 '제 2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고 비교해보면 공부방 아이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은 저를 단시간 안에 새로운 마고네 구성원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마음의 문은 누군가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고네 아이들과 저는 어느덧 서로 마음의 문을 연 채 마음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였던 것보다 얻은 것과 배운 것이 훨씬 많은 이 시간은 제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 기부금영수증 안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금하신 후원금을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2020년 1월 둘째 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19년 안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이주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사랑하는 이주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마기 예수님의 관성을 축하드리며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